

48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행전 16~17장, 고린도후서 11:23-29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강과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혼자 아텐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텐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 어떤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 있는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
 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16)



48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모양을 내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기는 하지만 모르고 있는 그 진짜 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덴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들어보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되고 구원받게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의 공부

복음을 전한 바울

1. 바울은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그림에 알맞은 말을 연결해 보세요.

분한 마음이
가득한 바울



“이 사람들에게 전파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어야겠다!”

결심하는 바울



“이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우상을
삼기고 있구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바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우상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말씀을 읽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골로새서 1:28-29)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1. 우리 주변에는 아직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나요?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

.....

.....

.....



.....

.....

.....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을 받으며 진리를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알아볼까요

아텐? 아레오바고? 이게 뭐지?

아텐

어린이 여러분! '아테네' 라고 들어본적이 있나요?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한글 성경에 나오는 아텐이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학문과 조각 등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이 너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 학문의 수준이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서편 언덕 위에 있는 광장으로 종교재판까지 하는 유명한 법정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